



성령 강림

장 레스투 2세

(Jean II Restout, 1692~1768)

1732, 캔버스에 유채, 465x778cm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파리

입당 송 | 지혜 1,7 참조

주님의 영은 온 세상을 채우시고 만물을 살리시며 온갖 말을 다 아시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2,1-11

화답 송 | 시편 104(103), 1ㄱㄴ과 24ㄱㄴ, 29ㄴㄷ-30, 31과 34(◎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제2독서 | 1코린 12,3ㄷ-7.12-13<또는 로마 8,8-17>

부속 가 | <성령 송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돌주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주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로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 음 | 요한 20,19-23<또는 요한 14,15-16,23-26>

영성체송 | 사도 2,4.11 참조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하느님 나라의 패러다임



차바우나 바오로 신부 | 서울성모병원 영성부장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생각의 틀’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점진적인 축적이 아니라 생각의 틀이 바뀌는 변화가 혁명적인 발전을 이룬다는 이론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은 평평할 거라 믿었기에, 멀리서 오는 배가 돛대부터 보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나서야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은 배를 타고 계속 가더라도, 도달하는 끝은 낭떠러지가 아니라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렇듯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존에는 설명할 수 없던 것을 이해하게 만들어 급격한 발전을 가져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내밀고 겹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어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볼멘소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고, 그건 착한 게 아니라 이용당하기 좋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을 보면 설사 본인이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자녀에게마저 다른 뺨도 맞고 오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기준 하에 사는 것과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는

복음이 구닥다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패러다임은 우리가 모두 ‘형제’이며 서로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부모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한 형제입니다. 만일 형제끼리 각자의 것만 챙기고 조금의 양보도 없이 서로 보복하며 산다면, 부모의 마음은 아플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서로 나누고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부족해도 참아주고 우애 있게 지내라고 합니다. 이것을 머리로 알아도 마음으로 따르긴 어렵습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살다 보면 ‘누가 저의 형제입니까?’ 혹은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라며 매몰찬 얼굴을 드러냅니다.

“성령을 받아라.”(요한 20,22)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야 하느님의 패러다임으로 넘어옵니다. 그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 수가 없고, 설명 이해했다 하더라도 마치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머리를 넘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한 깨달음은 삶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완전한 투신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힘입은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외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1코린 12,3)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남이 아니라 형제였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형제들에게 전하기 위해 세상 끝까지 나아갔고, 또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게 됩니다.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성화 해설

장 레스투 2세는 생드니 수도원의 식당에 비치하고자 성령 강림과 계약판을 받는 모세를 쌍으로 그렸는데 현재 이 그림만 남았습니다. 그림을 보면, 제단 위의 성모님을 중심으로 성별과 나이, 민족과 직분의 구분 없이 모든 이들이 하나의 지점에서 시작된 같은 성령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령을 받는 이들은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어 흠어진 마음과 저마다의 언어를 모아, 마침내 같은 신앙을 고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에스델 | 선교사

화해의 기쁨을 향한 길목에서

저녁 식사할 때면 아버지는 항상 밤 9시 뉴스를 켜 놓으셨습니다. 그날도 가족들은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 베를린장벽이 무너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장벽 위에 올라가서 맥주를 마시거나 서로 부둥켜안고 축하하며 환성을 질렀습니다. 제 나이 14살 때였고 저는 처음으로 ‘화해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2년 후, 스페인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저는 교환학생으로 북아일랜드에 가서 제 또래 여학생 집에서 몇 주간을 살았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곳은 남아일랜드와 국경을 마주한 곳이었는데, 저희는 친척을 만나기 위해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국경 초소의 경비는 삼엄했고 사방에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아이아르에이(IRA, 아일랜드 무장단체)가 활동하던 시기여서 벨파스트에서 총격이나 폭탄 테러 소식도 자주 들었습니다. 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경험한 후, 저는 평화와 화해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통번역을 전공했습니다. 1994년 어느 날, 공부하던 중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육원에 있는 두 북한 고아의 생기 없는 눈과 극도로 마른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고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또 많은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다른 나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엄청난 연민과 고통’이 몰려왔고, 저는 이때 제 첫 번째 소명을 깊이 느꼈습니다. 북한 사람들과 함께 하며,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을 위해 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견진성사를 준비하던 저에게 교리교사로서 함께해 주시던 수녀님께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글을 여러 편 주셨는데, 그중 몇 구절은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암살당하기

몇 달 전에 한 설교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북한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를 제 소명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평화롭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상처와 아픔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을 드러내고 사랑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주신 화해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는 부드러움으로 진실에 접근하고 모두가 그 진실에 동의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저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제주 4·3, 그리고 5·18 등에서 우리가 겪은 모든 상처를 보듬어 안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정의가 없이는 평화도, 화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해는 마침내 모든 당사자가 오랜 치유의 과정을 거쳐 성숙한 새 미래를 함께 꿈꿀 때 가능한 것이기에, 한국 가톨릭 교회가 그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저도 그 안에서 역할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화해와 정의, 평화의 예언을 실천하는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을 떨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한컷 묵상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알려 주실 것이다”
(루카 12, 12)

강신성 요한 세례자 | 작가

갈대 바다와 요르단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김영선 루시아 수녀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희망찬 순례의 여정을 떠났던 역사적 순간을 꼽는다면, 그들이 노예살이를 박차고 이집트를 떠났던 순간과 요르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서던 순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여정을 돌아봄으로써 우리는 희망의 순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한 지 사백 삼십 년 만에 모세의 인도로 그 땅을 떠났습니다. 하느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심으로 누가 세상의 주인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마침내 파라오는 굴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떠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납니다. 이 희망찬 여정에 많은 이국인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고 난 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된 후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기는 하느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어 주셨듯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있어 줄 것을 약속하시며 힘과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광야 여정 동안 이집트를 떠났던 탈출 1세대는 여호수아와 칼렘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탈출 2세대는 익숙했던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이라는 낯설고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꿈꿔 왔

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큰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찬 여정 앞에는 숭한 도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도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걸려 넘어지게 하였지만, 시련을 통해 그들의 희망은 정화되고 단단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면서 갈대 바다의 기적을 경험하였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서기 전에는 요르단강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두 기적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야말로 희망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됨을 잘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바다, 뒤로는 그들을 추격하는 파라오 군대의 말발굽 소리에 둘러싸인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잠자코 있으라 명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싸워주실 것임을 믿으라고 합니다. 수확기를 맞아 넘실거리는 요르단강의 강물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계약의 궤와 그 궤를 맨 사제들을 뒤따라 가라고 명합니다. 그들이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길의 안내자는 하느님의 계약 궤와 그 궤를 맨 사제들, 곧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시련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여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주님께 대한 신뢰와 희망을 배가해야 합니다. 시편 시인처럼 이렇게 아뢰십시오.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시편 130,5)

‘용서’보다 더 어려운 게 있나요?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두 염소가 있었는데, 이 둘은 서로가 너무나 미워서 가장 뜨거운 여름엔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추운 겨울엔 서로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려 멀리 떨어져 살다가 결국 각각 얼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를 죽게 합니다. 우리는 용서가 필요하고 중요하며 가장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하지만 때로 용서를 실천하기 너무 어렵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마태 18, 21-22) 당시 유대교 율법은 3번 용서의 의무를 강조했으나, 베드로는 이를 넘어 자랑스럽게(?) 7번의 용서를 제시했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77번, 즉 ‘완전한 용서’를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누구나 잘 압니다. 특히 큰 상처를 받아 본 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전에 참된 용서를 해 본 사람은 잘 압니다. 내게 상처 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깊거나 혹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경우, 그리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은 나

만큼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원망이란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미워하기는 쉽지만 용서하기는 참 힘듭니다. 용서하는 것이 때로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용서란 내 마음에서 독을 빼내는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근본적으로 상대방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토록 어려운 용서를 실천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은 더 클 것입니다. “저희에게 잘못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루카 11, 4)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마태 6, 15)

물론 아직 용서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데, 용서에 대한 강박이 심해서 준비되지 않은 채 용서한다면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 너무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언제나 기도와 참된 회개를 전제합니다. 용서하기 위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참된 회개는 우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인간의 죄가 사라졌음을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함께하심을 느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회개의 출발점이고,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하느님 사랑을 깊게 체험한 사람만이 참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마태 5, 7)



청년 페스티벌 빛나다, 기쁘다, 바라다 **Youth Festival** 히히히 개최

2025년 5월 10일(토)~11일(주일) 이틀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일대가 젊은이들의 밝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며 열린 청년 페스티벌 ‘히히히’는 ‘진리(VERITAS)’, ‘평화(PAX)’, ‘사랑(AMOR)’을 주제로, 각각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진리존), 동성중고등학교와 가톨릭청소년회관(평화존), 대학로(사랑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진리 ·

주교님과의 만남 & 밤샘기도(Vigil)
성소 주일 미사

5월 10일 오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대성당에서 ‘이경상 바오로 주교님과의 만남과 밤샘기도(Vigil)’가 열렸습니다. 이는 2027서울WYD 밤샘기도(Vigil)를 미리 체험하는 자리로, 젊은이들은 고해성사와 찬양 기도, 그룹 나눔과 성체 조배를 통해 하느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11일 아침에는 성신교정 운동장에서 성소 주일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은 이날 강론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수많은 정보와 소음 속에서 쉽게 묻혀버릴 수 있음을 지적하시며, 젊은이들에게 일상에서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길 당부하셨습니다.



· 평화 ·

Open Space Every YOUTH
= 오세요 OSEYO 콘서트
수도회 부스존 & 수수(수도자와의 수다)

가톨릭 청년 작가 기획전
<작전명: PAC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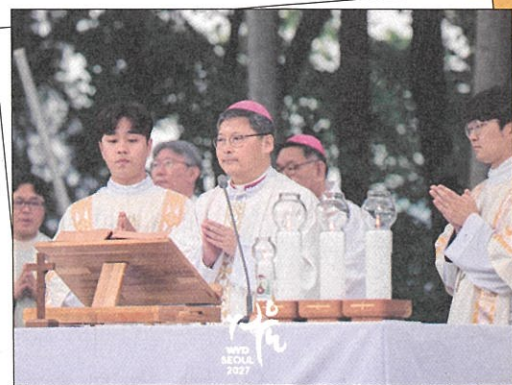
코이노니아 <꼭씩 말했‘수다’>

가톨릭청소년회관에서 진행된 오세요 OSEYO 콘서트는 수도자들의 특별한 공연으로 채워졌습니다. 이틀에 걸쳐 총 12개 수도회에서 참여하였으며, 특히 프란치스칸 가족 수도회의 무대를 담은 영상은 7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동성중고 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수도회 체험 부스존에는 36개의 수도회가 참여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수수(수도자와의 수다)’ 프로그램은 약 100명의 수도자가 청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고민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가톨릭청소년회관 1층 소강당에는 평화를 주제로 한 가톨릭 청년 작가 20명의 작품도 전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일 오후에는 청년 신앙 토크콘서트 ‘코이노니아<꼭씩 말했‘수다’>’가 열렸습니다. 6명의 청년이 각자의 신앙 체험을 나누며, 서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사랑 ·

‘나’, ‘너’, ‘우리’ 사랑 부스존
토크콘서트 <나, 너, 우리를 노래하다>

축제 중 대학로에는 ‘나’, ‘너’, ‘우리’를 키워드로 사랑 부스존이 설치되어, 청년들의 일상과 신앙이 교차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좀 더 알아가고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 뿐 아니라, 공동의 집과 비인간 피조물, 이주민 등을 다루는 다양한 부스가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학로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는 다양한 가수들의 공연과 그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준비되었습니다.



‘유난’에 희망을 두는 사회



도서 《양심》

다큐멘터리 영화 <고양이들의 아파트>는 재건축을 앞둔 대형 아파트 단지를 터전으로 삼은 길고양이들의 모습과 함께, 재건축이 시행되기 전에 길고양이들을 안

전한 곳으로 이주시키려는 봉사자들과 활동가들의 모습을 담습니다. 영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거대한 공간을 비춤으로써 재건축을 맹목적으로 조장하도록 이끄는 한국 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을 보여줌과 동시에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야생 동물들을 향한 인간들의 무관심과 무지함을 꼬집습니다. 그리고 무지함과 무관심을 뛰어넘는 봉사자들과 활동가들의 모습에 영화는 희망을 겁니다.

특히 영화 속 봉사자들과 활동가들의 모습은 ‘유난’이라는 표현을 떠오르게 합니다.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쉬운 유난이, 이제는 무언가 정체되어 있어 보이는 곳에 생기를 돋우는 활력소와 같은 의미로 활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누군가는 길고양이들을 이주시키는 일을 ‘유난 떠다’는 식으로 폄하할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차라리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작은 것들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사회는, 그 누구도 존중해주지 못하는 사회일 공산이 큼니다. 그렇게 아파트 대단지의 재건축과 맞물린 길고양이들의 이주 프로젝트는 ‘유난’을 존중하고 ‘유난’에서 힘을 얻는 사회를

희망하도록 이끅니다.

최재천 교수와 ‘최재천의 아마존’ 유튜브 채널을 기획·제작하는 ‘팀 아마존’이 함께 쓴 《양심》을 읽으며 ‘유난’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양심》이 담고 있는, 과학자이자 동시에 환경운동가이며 양심에 귀 기울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재천 교수가 보인 모습들은 모두 ‘유난’으로 귀결됩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며 환경단체에 힘을 실어주던 최재천 교수에게 당시 정부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유난스러운 과학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듯 그의 연구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를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는 데 앞장선 최재천 교수를 향해 초기 여론은 왜 그런 프로젝트에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이는 유난을 떠나는 식으로 판단했습니다. 호주제 폐지에 힘을 실었던 최재천 교수에게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던 남성들은, 남자가 왜 여성의 편에 서서 유난을 떠느냐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이처럼 《양심》에 담긴 최재천 교수의 지난 행보는, 우리 역시도 불편함을 감수하며 세상을 더 나은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 속 예수님이 ‘유난’과 밀접한 삶의 모습을 보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 서서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셨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모든 유난을 대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유난을 대변하고 유난으로 상징되는 복음 속 예수님의 삶, 곧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국내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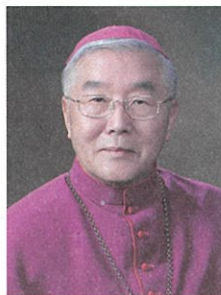
오늘(6월 8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축일로, 신약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9년 6월 15일 윤형중 마태오 신부(76세)
- 2007년 6월 12일 장덕범 바오로 신부(84세)
- 2008년 6월 13일 나상조 아우구스티노 신부(87세)
- 2010년 6월 15일 조순창 가시미로 신부(77세)

군중교구 제3대 교구장 유수일 주교 선종



회 관구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제3대 교구장 유수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님께서 지난 5월 28일(수)에 선종하셨습니다. 주교님께서는 1945년 논산에서 출생하여 1980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2025년 5월 30일(금)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천안 성거산 작은형제

교구청 알림

2025년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성음악 직무자 세미나

대상: 지휘자, 반주자 및 관심있는 모든 교우
 때, 곳: 7월 12일~8월 16일 중 매주(토), 최양업홀(중림동)
 등록: 6월 9일(월)~27일(금)까지 / 문의: 02)393-2213~5
 접수방법: 홈페이지(www.casm.co.kr)

향심기도 4박5일 집중 피정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때: 6월 11일(수) 17시~15일(주일) 점심 식사 후
 곳: 명상의 집(우이동) / 회비: 28만원
 문의: 010-4565-8898

2025 토요 성모신심 미사와 20단 묵주기도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 강의: 조창수 신부
 내용: 참된 신심
 때, 곳: 매주(토)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2
 문의: 010-8889-5425(문자) 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유튜브 성모신심순례파장: 8월 13일~23일 / 피정 지도: 조창수 신부
 문의: 010-8889-5425(문자) 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명동대성당 2025 생명교리 강좌

대상: 세례성사를 받은 20세 이상 신자
 때, 곳: 6월 29일~7월 27일 매주(주일) 14시~16시,
 코스트홀 / 제출서류: 교적증명서 1통과 신청서
 신청인원: 선착순 100명 / 문의: 02)774-1784 성당 사무실
 접수: 6월 15일 10시~17시, 성당마당 부스 · 6월
 17일~22일, 성당 사무실 / 자세한 내용은 명동대
 성당 홈페이지-성당소식 참고 필수
 본 생명교리 강좌 5주 모두 빠짐없이 수강 시,
 2025년 명동대성당 하반기 견진성사(10월 26일) 신
 청 가능, 단, 지각 · 조퇴 시 불가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영성심리아카데미 / 문의: 02)727-2126
 교육명: <성경순례> 저자와 함께하는 마태오복음(허영엽 신부), <레처콘서트> 클래식, 신앙을 담다(김수연)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 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
 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교구청별관 B106호(명동), 노원성당, 삼성산성
 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 · 예약(문자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이단야 이콘전: 1전시실
 우원경 개인전: 2전시실
 최양선 · 이상희 · 양원희 성미술 3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6월 6일(금)~15일(주일)

2025 상반기 생명가치존중세미나

주제: 생명윤리와 인공지능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대상: 가톨릭신자 신청순 250명(회비 없음)
 강사: 박은호 신부(가톨릭대 교수)
 때, 곳: 6월 14일(토) 오후 2시~5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명동) / 문의: 02)777-2013 서울평단협 사무국
 신청: 서울평단협 홈페이지(www.clas.or.kr) 공지사항 참조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과(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
 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2025년 사목국 성서못자리 성서특강

때: 6월 26일(목) 10시30분~15시20분
 곳: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대강의실(혜화동)
 강사: 이한석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주제: 역사와 성서-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믿
 는 것에 대해 / 회비: 4만원(점심식사 제공)
 접수: 5월 20일(화) 10시부터 사목국 홈페이지(www.
 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선착
 순 400명) / 문의: 02)727-2379 사목국 성서못자리

6월 생명위원회 미사 및 프로그램 안내

1)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된 영혼을 위한 기도와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곳: 6월 10일(화) 오후 1시30분~4시30분, 교구
 청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0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 6월 임신부와 태아축복식
 때, 곳: 6월 14일(토) 오후 4시, 명동대성당 내 영성
 센터 경당(1F, B-103호) / 준비물: 미사준비 일체
 6월 11일(수)까지 접수 / 문의(신청): 02)727-2364
 3) 청년을 위한 성, 생명, 사랑이야기
 대상: 20대~40대 미혼 여성
 때, 곳: 7월 5일(토) 10시~17시30분, 영성센터 A동 302호
 내용: 나의 생식력 자각을 통해 내 몸과 친해지는
 법 배우기 / 문의: 02)727-2353 생명위원회

환경사목위원회

1) 청년환경 모임

고통 받는 공동의 집 지구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
 물들을 위해 실천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초대합니다
 대상: 환경 파괴의 상황과 기후 위기의 시대에 함
 께 기도하고 행동할 청년(만 35세 이하)
 때, 곳: 6월 14일(토) 16시, 가톨릭회관 612호(명동)
 문의(신청): 02)727-2283, 2278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2) 제75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
 들과 후원회원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때, 곳: 6월 19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민족화해위원회

1) 2025 세계평화의 바람 DMZ국제청년평화순례 참가자 모집
 때, 곳: 7월 10일(목)~13일(주일), 강화 · 파주 · 연천 · 철원
 대상: 평화에 관심있는 20세~39세 청년(내 · 외국인)
 회비: 10만원 / 문자: 010-4682-2412(신청서품 발송)
 문의: 02)753-0815
 2) 2025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
 때, 곳: 6월 22일(주일) 12시, 명동대성당(별도의 신
 청 없이 참석 가능) / 주례: 정순택 대주교(서울대교
 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3)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30주년 기념학술회 / 문의: 02)3789-0815
 주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천주교 서울대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여정과 사명
 대상: 누구나 참여 가능
 때, 곳: 6월 22일(주일) 15시~18시30분, 명동대성당
 영성센터(구 계성여고) B201호
 4) 1467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6월 10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분당': 서울대교구(북녘지역)
 장려 분당 / 문의: 02)727-2420

한국 카리타스 설립 50주년 기념행사

한국 카리타스 설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신자 여
 러분을 초대합니다 / 문의: 02)460-7638 자세한 내
 용 홈페이지(caritas50.cbck.or.kr) 참조
 주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기념행사 일정(명동대성당과 코스트홀 등에서 개최)	
6월 18일(수)	개막 미사(14시), 세미나 1.2(16시), 음악회(19시)
6월 19일(목)	도보 성지 순례(9시30분), 감사미사(15시)
6월 20일(금)	폐막미사(11시)

인준단체 알림

모임

예수회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4박5일 침묵 피정

때: 7월 25일(금)~29일(화), 8월 6일(수)~10일(주일)
 곳: 예수회센터 / 문의(접수): 02)3276-7799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9-1608

때: 매주(금) 19시~21시45분 / 장영자 은사자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치유기도회

파티마 성모님 발현 피정

때: 6월 13일(금) 오전 9시30분~정오 / 02)756-3473,
 010-2759-3473 서울대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곳: 가톨릭회관 7층 / 강사: 마진우 신부(대구대교구)

6월 '침' 사순 침묵 피정(성령선교수녀회)

대상: 만 40세 이하 미혼 여성 / 회비: 4만5천원
 때: 6월 13일(금) 20시~15일(주일) 10시, 본원
 (혜화동) / 문의: 010-2691-4895 (문자 접수)

3지구 매월 셋째주(수) 무료 치유 피정 / 문의: 010-4444-1264

내용: 말씀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 / 점심 무료 제공
 강사: 김현우 신부(인천 해양 사목 담당)
 때: 6월 18일(수) 11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강당

성령 강림 치유 대피정

때: 6월 13일(금) 18시~14일(토) 17시30분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강사: 강우일 주교 외
 회비 없음 / 문의: 02)874-6346, 010-3310-8826
 삼성산 성령 수녀회·사랑의 성령봉사회

성령안에서 치유회복 피정

때: 6월 14일(토) 15시~15일(주일) 16시, 아론
 의 집(의왕시) / 대상: 가톨릭신자 누구나 100명
 피정지도: 박효철 신부 / 문의(접수): 010-6366-4022
 주최: 하느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수원교구 찬양사도협)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고난은 진정 하느님의 끈인가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찬양: 고영민
 때: 매월 둘째주(토) 6월 14일 14시~18시, 구산성지
 회비: 1만원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토아울람 화요 치유 피정

때: 6월 10일 / 문의: 010-5514-4077 회장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6월 10일 / 진흥장 회장 6월 17일 / 성시간, 연도, 위령미사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형성) / 010-3340-0201

효소 단식	6월 26일~29일, 7월 17일~20일
성경 완독	7월 24일~8월 2일, 8월 15일~23일
카타리나의 집(개인·자제회사)	문의: 010-9715-1203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6월 13일~15일, 7월 11일~13일
엄마와 딸(미혼) 피정	7월 5일(토)~6일(주일)
영신수련 8일 피정(9박10일)	8월 4일(월)~13일(수)

ICPE 두근두근 성가정을 위한 1일 피정-인격

때: 6월 15일(주일), 합정 ICPE센터
 문의: 010-5646-6594 / 카카오톡 플친: ICPE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 1박2일 치유 피정

때: 6월 28일(토) 14시~29일(주일) 14시, 청주
 교구 초정성령회관 / 셔틀버스 운행(조치원역, 청주)
 회비: 2만원(청소년 무료)-3식 제공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성체 성혈 대축일 대 피정

주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강사: 염수정 추기경, 임승철 신부
 미사집전: 추기경 외 사제단 / 회비: 3천원
 때: 6월 23일(월) 13시~16시, 명동대성당
 문의: 02)773-3030 서울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성지순례·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탐방

때: 6월 15일~17일(대구 17곳)·10월 18일~22일
 (울릉도·독도·수도원)·가톨릭회관 후문 출발, 8월
 28일~9월 3일(백두산·브뤼기에르 주교 죽음의 길), 9
 월 20일~23일(제주도·추자도·차귀도 / 미사)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

2025년 천안 마리아폴리

주제: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19)
 내용: 포콜라레 영성 소개, 복음적 사랑과 일치 체험
 일정: 1차 7월 26일~29일·2차 7월 31일~8월 3일
 곳: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시)
 접수: 6월 16일(월) 12시~20일(금) 인터넷(focolare.or.kr)
 문의: 010-9989-7085 (재)천주교마리아사업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분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추자도포함 제주 성지순례 6월 21일~23일·7월 1일
 ~4일·9월 7일~10일·9월 18일~21일·10월 25일~28일, 자
 연순례 7월 12일~14일·9월 1일~3일·9월 13일~15일, 우
 도섬 포함 여름 피정 7월 18일~20일·7월22일~24일(차
 귀도)·7월 26일~29일·8월 1일~3일·8월 7일~9일·8월 11
 일~13일 /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7월 4일 10시~15시30분
토요성모신심 기도와 미사	6월 21일 10시~12시
다네이(영성수련(대침묵))	6월 27일~29일(2박3일)
대침묵 피정	7월 24일~27일(3박4일)
수요 개방 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경당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분 출구, 버스 환승 500·504·
 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주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4시30분~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터)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6월 도심 속에 하루 피정 '침'

모든 것은 시간이다 서두름으로 시
 간을 잃고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
 때: 6월 28일(토) 10시~17시 / www.jiscen.or.kr
 문의: 02)726-0700 천진상 영성센터(명동)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교육 화원 모집(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어른초등학교·중학교 학생 모집(한국여성생활연구원)

교육청 학력 인정 초등학교·중학교과정 / 02)727-2471

한국외방선교수녀회 Zoom 성경통독

대상: 20세~40세 미혼 여성 / 문의: 010-9353-1773
 때: 매주(목) 20시~21시10분

영의 식별

때: 6월 14일~7월 19일 매주(토) 13시30분~16
 시30분, 영성센터(명동) C301호 / 회비: 12만원
 문의: 010-5573-6177 사도성안드레아 수녀회

예수회 생활지도수련원 강좌

정규한 신부 / 문의: 010-3845-3045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 10주 강좌
 때: 6월 12일(목) 13시30분~16시, 강남구 삼성동

해외가톨릭사립학교 학생·캠프 모집

미국·아일랜드 기숙사 학교 / 대상: 초3~고1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레지오회 해외학교법인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월)·(화)·(수)·(금)·(토) 13시30분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서강대학교 '거룩한 만남의 순간들'

주제: 초대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강사: 송봉모 신부(예수회) / 문의: 02)705-4711
 때: 6월 16일(월) 14시~16시(강의·미사)
 곳: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 회비 없음

제26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pbccamp.com)

캐나다	토론토대 영어캠프, 캐나다 및 미동부 탐방
미국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프 (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탐방)
영국	국내 유일 옥스퍼드 영어캠프(순흥민 토트넘·서유럽투어)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

7월 개강 /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center.jesuit.kr)

(월) 근·현대 문화유산 교회사	이진현 신부
(월) 월요무료 피정 '의식 성찰-그리스도의 시선'	이근상 신부
(화) 구약성경 아카데미-사무엘기, 열왕기	주원준 박사
(수) 예수의 윤리 이야기-덕, 평화, 공동체	박상훈 신부
(목) 인간과 창조-바오로의 관점	김민철 신부

모집

시스피나 시니어합창단원 모집(혼성)

지휘: 이호중 교수 / 남성단원 환영
 곳: 시스피나 음악원(신촌) / 문의: 010-7257-4255

재속 맨발 가르멜회 십자가의 성 요한 회원 모집

대상: 만 55세 이하 견진성사 받은 분
 첫모임: 6월 9일(월) / 문의: 010-9836-8998

미사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6월 19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글라셋선교수도회 서울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6월 16일(월) 11시, 글라셋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7764-6031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때, 곳: 6월 16일(월) 14시~16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접수): 02)6253-3373, 010-8360-3700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때: 6월 13일(금) 11시~14시 / 접수 필수
 곳: 본원 성당(전철 3호선 지축역 10분)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오푸스데이 설립자 성 호세마리아 축일 미사

때, 곳: 6월 21일 (토) 오전 9시, 도림동성당
 일상생활의 성화라는 가르침에 관심이 있는 신자들을 환영합니다 / 문의: 이메일(info.kr@opusdei.org), 전화(02-727-2480)

안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문의(예약):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교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상담자)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IPC

대상: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곳: 강남 /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생활성서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북콘서트’

도사: 비아토르(길 위의 인간) / 강사: 김용해 신부
 때, 곳: 6월 21일(토) 14시, 서강대학교 성이나시오성당
 공연: 국악 동요 듀오 솔솔 / 회비 없음
 문의(접수): 02)945-5985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야외수영장 개장 알림

때: 주말개장 6월 6일부터 매주(토·주일), 상시개장 7월 18일~8월 17일 / 그날막, 주차 무료
 개인 및 단체 하루이용 가능 / 문의: 031)840-001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여의도성모병원 나프로임신센터

나프로임신법(NaProTECHNOLOGY)은 가톨릭 영성을 바탕으로 여성의 생리주기 변화를 기반으로 한 원인분석-진단-치료의 과학적 가임력 관리로 건강한 자연임신을 돕는 방법입니다 / 문의(예약): 1661-7575
 대상: 자연임신을 원하는 모든 부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인천 동구 박문로 1) 방문·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안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하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 심리치료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해리 등), 가족·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따뜻한 기도모임	매월 첫째·셋째주(월) 19시30분~21시30분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일상담 가능

전문 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관계 등
	마음투자 정부지원금 신청 해당기관

유관단체 알림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매체심리 상담전문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개별상담	우울, 중독증상 및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시니어·아동·청소년·성인

직원모집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주방 근무자 모집

문의: 010-3401-5541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계약직 모집

요양보호사 남녀 모집 / 문의: 010-7171-9503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직원 모집

분야: 치위생사, 행정(인사·총무) 각 0명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하여 지원서 접수 / 문의: 02)2634-1760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정규직 신입직원 모집

분야: 기술직-시설(영선) / 문의: 02)740-9707, 8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성신광장-모집공고 참조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청소년문화공간JU 직원 모집

분야: 학교밖청소년 관련 사업 계약직 직원 1명(정규직 TO) / 6월 15일(주일)까지 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부서 홈페이지(www.iju.or.kr) 확인

(재)2027 서울 WYD 조직위원회 직원 모집

업무: 기부금·후원관리, 보조금지원사업, 디자인 담당자 각 1명 / 서류: 홈페이지 다운로드
 6월 15일까지 이메일(recruit@wydseoul.org) 접수
 홈페이지(www.wydseoul.org) 공지 참조 / 이메일 문의

창5동성당 미화원 모집

분야: 미화원(계약직) 1명 / 문의: 02)990-5684
 대상: 세례받은 신자로 성실한 분 / 6월 15일(주일)까지 방문 및 이메일(chang5dong8@seoul.catholic.kr) 접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명일동성당 사제관 주방근무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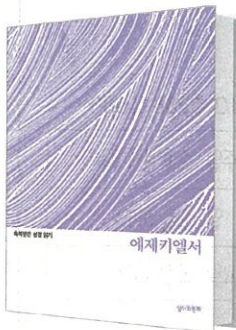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6월 20일(금)까지 우편(우 05235,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6길 28) 및 이메일(belle14@seoul.catholic.kr) 접수
 서류 전형 후 개별 면접 / 문의: 02)481-0211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강동구) 세탁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세탁근무자 1명(계약직)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 이메일 문의
 6월 18일(수)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cinsa@seoul.catholic.kr)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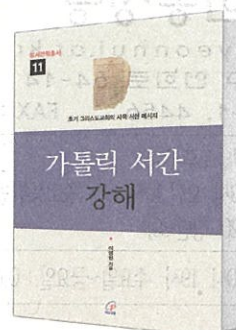


신간

**축복받은 성경 읽기
에제키엘서**

가톨릭성서모임 엮음
성서와함께 164쪽 | 4천원
문의: 02)822-0125

《축복받은 성경 읽기》는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쉬운 문제집' 낱권 시리즈다. 별다른 주석서나 해설서가 없어도 성경만 보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과 말씀의 봉사자나 지도자가 없어도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단순한 구성으로, 개인 혹은 단체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간

가톨릭 서간 강해

이영현 지음
바오로딸 1400쪽 | 2만3천원
문의: 02)944-0944

성서연학총서 시리즈 열한 번째 책인 '가톨릭 서간 강해'가 출시됐다. 서간마다 꼼꼼하게 각주를 달고 폭넓게 설명하여 말씀에 담긴 신학적 메시지를 명료하게 담았다. 개관은 물론, 서간 전체의 성경 구절에 대한 주해까지 담고 있어, 가톨릭 서간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신간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조명연 지음
파람북 1336쪽 | 1만8천원
문의: 031)935-4049, 010-6221-1794

이 책은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행복한 삶으로 향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풍부한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심리 구조를 분석한 다양한 책들을 인용하면서 임상 심리 실험 사례를 통해 비뚤어진 마음 자세를 바로잡도록 돕는다. 이 책을 통해 지금 우리 앞에 놓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일상 속 기쁨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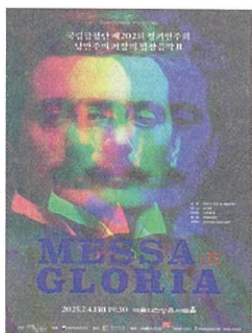


연주회

**서울시향 에드워드 가드너와
제임스 에네스**

때: 6월 26일(목)~27일(금) 20시 / 문의: 1588-1210
곳: 예술의전당 콘서트홀(26일)·롯데콘서트홀(27일) / 입장권: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C석 1만원
전화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참조시 주보 1부로 2명 20% 할인(C석할인제외)

지휘자 에드워드 가드너가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첫 무대로 멘델스존과 슈트라우스의 작품을 선보인다. '가장 완벽한 바이올리니스트'로 평가받는 제임스 에네스는 월터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하며, 깊은 서정성과 화려한 기교를 펼칠 예정이다. 6월 26일(목)에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6월 27일(금)에는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연주회

**국립합창단 제202회
정기연주회 미사 글로리아**

때: 7월 4일(금) 19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입장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1668-1352 예술의전당, 1544-1555 인터파크 티켓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참조시 주보 1부로 2명 20% 할인

'낭만주의 거장의 합창음악'이라는 주제로 자코모 푸치니의 <미사 글로리아>가 무대에 오른다. <미사 글로리아>는 전통적인 미사 형식을 바탕으로 신앙과 인간 감정의 교차를 음악으로 풀어낸 푸치니의 상징적인 작품이다. 경건한 기도와 장대한 환호, 내면적 침묵과 폭발적인 에너지가 극적으로 교차하며 낭만주의의 정수를 담은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연주회

**한국오라토리오싱어즈
제38회 정기연주회**

때: 6월 14일(토) 17시
곳: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
입장권: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 문의: 010-6292-6225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참조시 주보 1부로 30% 할인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추모하는 의미의 포레의 <레퀴엠>과 레오 14세 교황님의 선출을 축하하는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 공연을 한국오라토리오싱어즈 제38회 정기연주회로 만날 수 있다. 이호중 지휘로 소프라노 강혜정, 메조소프라노 신현성, 테너 정제윤, 베이스 성공용, 협연 트리니타스챔버오케스트라가 출연한다.



제2시대문·미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 임 신 부 : 유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보좌신부 : 최원영(스테파노)

연락화장 : 이남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청진하지!!”

● 성소후원회 미사

- 일시 : 6월 17일(화) 오전 10시
- ※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 미사 후 201호에서 회합이 있습니다.

● 병자영성체

- 일시 : 6월 26일(목) 오전 10시 출발

● 남성울트레이

- 일시 : 6월 15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울트레이

- 일시 : 6월 24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청년떼제기도

- 일시 : 6월 21일(토) 오후 4시 ~ 6시
- 장소 : 소성전

● 여성구반장 회합

- 일시 : 6월 8일(주일) 12시
- 장소 : 소성전

● 연성회 야외행사

- 일시 : 6월 14일(토) / 성당에서 10시 출발
- 장소 : 행주산성
- 문의 : 김무영 요셉 (010-3891-4300)
- ※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오라때성가대 성지순례

- 날짜 : 6월 20일(금) ~ 21일(토)
- 장소 : 갑곶순교성지 및 강화도 일대
- 참가대상 : 성가대 전원
- 문의 : 하야친타 단장 (010-6788-1588)

● 남성분과 성지순례

- 날짜 : 6월 21일(토) / 성당에서 오후 1시 출발
- 장소 :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 참가대상 : 연성회, 대건회, 양업회, 하상회
- 문의 : 분과장 (010-4248-0721)
- ※ 순례 후 뒷풀이가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 (5월~6월)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김명주	유스티나	1-1	정운아	세시리아	1-4
유경화	소피아	4-4			

● 전입 교우 환영식

- 일시 : 6월 22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중

● 교무금 책정 현황 (2025. 5. 25)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4년 책정률	2024년 납부율
2,003	669 (33.4%)	629 (31.4%)	42.9%	41.6%

교무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헌금 (5월 26일 ~ 6월 1일)

곽선모	오천원	김선녀	일십만오천원
정수진	칠만원	김은순	오만원
변경섭	이십만원	이유진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삼십육만원

● 우리들의 정성 (주님 승천 대축일)

교 무 금	13,335,000원
주일헌금	6,383,500원

입당	147	봉헌	220,211,342	성제	176,175,174	파견	142
----	-----	----	-------------	----	-------------	----	-----



주님 당신숨을 보내시 - 어 온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